

청교도 언약신학으로 살펴본 탈진실 시대의 그리스도인 윤리*

- 토마스 왓슨의 『십계명 해설』을 중심으로

김상겸 (월평동산교회 부목사)

- I. 들어가는 말
- II. 탈진실과 청교도 언약신학
 - 1. 전광훈과 청교도
 - 2. 청교도 언약신학
- III. 언약백성의 삶의 규범: 십계명
 - 1. 왓슨의 십계명 해석의 원리
 - 2.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02>

* 본 논문은 2025년 11월 29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Christian Ethics in the Post-Truth Era as Seen Through Puritan
Covenant Theology: Focusing on Thomas Watson's *the Ten
Commandments*

Pastor, Kim Sang-kyum(Wolpyungdongsan Church)

This study examines the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s through the covenant theology of Puritan pastor Thomas Watson. Pastor Jeon Kwang-hoon, who advocates Puritan theology in this era, exemplifies the characteristics of a post-truth era marked by distortions of truth and incitement through fake news. His claims and actions cannot be aligned with Puritan spirituality. Puritan pastors, grounded in covenant theology, emphasized sanctification and guided believers toward a life of sanctification. The norms for the covenant people's lives are encapsulated in the Ten Commandments, known as the Mosaic Covenant. Watson concluded that what God ultimately desires from the Ten Commandments is not outward actions, but obedience to His commandments through a heartfelt love for Him. Therefore, the commandments encompass more than what is written. The Ninth Commandment not only prescribes abstaining from lying, but also implies actively striving to prevent deception and proclaim the truth.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uritan covenant theology remains a useful discipline for us today, and that the Mosaic covenant at its core serves as a standard for the lives of believers.

Key words: Post-truth, Christian ethics, covenant theology, Puritans, Thomas Watson, the Ten Commandments, the Mosaic Covenant

I. 들어가는 말

이 시대를 정의하는 단어 중 하나는 ‘탈진실’(post-truth)이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SNS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거짓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사람들은 거짓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사실이 감정적인 호소보다 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¹⁾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나의 기호에 맞고 나의 감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과 행동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보다는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릇된 신념과 믿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탈진실의 현상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서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규명과 해결을 위한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탈진실의 문제는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²⁾ 결국 탈진실의 문제는 한국 기독교 안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실제로 나타났는데, 한국에서 거짓 뉴스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인 선동에 기독교인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³⁾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은 윤석열

1) 허의진, “라캉의 자본주의 담화를 통해서 바라본 탈진실 현상에 관한 연구,” 『용봉인문논총』 61(2002), 268.

2) 김효숙,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탈진실 연구 동향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72(2022), 57.

3) 특히 이러한 문제는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보수 기독교인의 집회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은 대한민국의 선거가 북한 김정연과 중국에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축을 이루는데,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핵심 세력으로 남아 있다.⁴⁾ 이러한 기독교 운동의 중심에 전광훈이 있으며 보수 기독교인들은 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전광훈은 청교도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전광훈은 그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정치적 메시지와 청교도의 메시지를 혼합해서 설교함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그의 주장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⁶⁾

본 글은 전광훈이 청교도의 신학을 표방하는 아이러니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가 청교도 신학을 표방하는 것은 또 하나의 탈진실이며 그의 주장은 청교도와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진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진짜 청교도 신학을 통해서 찾아보려 하는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의 글을 통해서 찾아보려 한다. 청교도 신학의 핵심에는 언약 신학이 있는데, 청교도 목회자들은 언약신학을 통해서 성도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했다.⁷⁾ 특히 본 글은 왓슨의 저술 중 『십계명 해설』을 중심으로 탈진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한다.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인아, 『JTBC news』 2025.01월06일자, “의신 기자회견 나선 전광훈 “북한·중국이 대한민국 선거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0700> (2025.10.14.)

- 4) 이원균·성신형, “광장으로 나온 극단주의 개신교 세력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성찰-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241-242.
- 5) 전광훈은 1998년 청교도 영성 훈련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청교도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필, 『NEWS&JOY』 2019.07.18.일자, “청교도신학원 세운 전광훈 목사 “목사다운 목사 만들어야 한국교회 살아,”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83> (2025.10.13.)
- 6) 박인재, 『교회와신앙』 2025.11.07.일자, “전광훈 씨, “청교도신학원 등록하라” 종용,”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19> (2025.12.09)
- 7) 김상겸, “언약신학의 청교도적 적용: 토마스 왓슨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46 (2025), 42-43.

십계명은 언약신학 안에서 모세언약으로 이해되는데, 청교도는 십계명을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가운데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으로 보았다. 특히 탈진실의 시대는 제 9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본 글을 통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청교도 언약신학의 유익을 왓슨의 글을 통해서 생각해 봄으로 이 시대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탈진실과 청교도 언약신학

1. 전광훈과 청교도

전광훈⁸⁾이 청교도 신학을 표방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청교도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도들의 삶을 거룩한 경건 생활에 힘쓰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나아가게 했다.⁹⁾ 청교도의 주목적은 ‘주님께 대한 거룩함이 삶에 기록되고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었다.’¹⁰⁾ 하지만 그간 보여주었던 전광훈의 언행은 그가 청교도의 영성과 정반대에 있음을 보여준다.¹¹⁾ 오히려 전광훈은 은사주의, 신비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¹²⁾ 물론 청교도 운동은 교회와 사회 전반의 개혁에

8) 고신, 합동, 통합 교단은 전광훈에 대해서 이단성과 연설 등의 문제로 교류와 집회에 참여를 자제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대종교』 2025.11.03.일자, “2025년 교단별 이단 및 말 많은 단체 동향,”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42290&item=&no=20851> (2025.10.13.)

9) 김재성, 『청교도, 사상과 경건의 역사』 (서울: 세움북스, 2020), 19.

10) Packer, I. James, *Among God's Giants*, 박영호 역, 『청교도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39.

11) 그동안 전광훈의 언행은 도덕적 결함으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YTN라디오』 2025.05.27.일자, “대가리 박아 전광훈 본 신학자 기겁, “하다하다 별... 이미 이단 넘어선 사이비,” https://radio.ytn.co.kr/program/?f=2&id=102806&s_mcd=0433&s_hcd=01 (2025.10.13.)

관심을 둔 사회 운동의 한 형태이지만, 청교도의 최고의 목표는 성경적인 사회의 건설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성도의 경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엘 비키(Joel R. Beeke)는 청교도 신학에 관한 방대한 저술인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청교도는 참된 경건과 실천적 정의의 방향 속에서 교회 개혁을 시작했다. 청교도 사상이 강력한 정치적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청교도 사상은 항상 영적인 관점에 뿌리를 두고, 신학적인 관점의 인도를 받았다. 오늘날 우리는 심오하게 경건하면서 동시에 예리하게 신학적인 작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청교도는 신학과 경건을 결합시켰다. 왜냐하면 청교도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따로 구별된 설교자였기 때문이다.¹³⁾

전광훈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청교도의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열심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그가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열심으로 보인다.¹⁴⁾ 전광훈이 청교도 신학을 표방하는 것은 보수 그리스도인을 결집시키기 위함의 의도가 있다. 즉, 전광훈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청교도 신학의 이름을 표방하고 있으며 청교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12) 박용미, 『국민일보』 2025.02.27일자, “전광훈은 왜 광화문 운동 나섰나... 그 바탕엔 美 트럼프와 은사주의 있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11824> (2025.10.13.)

13) Joel R. Beeke &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1108.

14) 조하준, 『굿모닝충청』 2025.02.12일자, “극우 목사 전광훈 일가의 ‘기업 제국’ 실체 드러났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643> (2025.10.13.)

는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탈진실이며, 이러한 전광훈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탈진실의 특징으로 그대로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전광훈은 탈진실 시대에 탈진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교도 언약신학

필자가 탈진리, 탈진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청교도 언약신학이다. 청교도 신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언약신학인데, 대부분의 청교도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학을 전개했으며 경건 운동을 펼치고 사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려 하였다.¹⁵⁾

언약사상은 성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의 글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특히 언약사상을 통해서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말시온(Marcion)¹⁶⁾과 같은 이단에 맞서 싸웠으며 언약사상을 통해서 영지주의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신성(神聖)과 선재성(先在性)을 변호했다.¹⁷⁾ 이처럼 언약사상은 초대교회부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이단의 거짓된 주장으로부터 정통 신학을 수호하기 위한 언

15) 김재성은 그의 글에서 청교도 사상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교도 사상은 초기 영국 교회 순교자들이 남긴 개혁 정신을 물려받아서 로마카톨릭의 잔재를 청산하고 감독 정치를 거부하였다. 둘째, 청교도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공헌은 거룩한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것이다. 셋째, 청교도 사상은 언약 사상과 구원의 시정을 중요한 구조로 한다. 넷째, 청교도 신학은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작정,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확실히 정립했다. 김재성, 『청교도, 사상과 경건의 역사』, 19-20.

16) 말시온주의자들은 구약성경을 복음과 대치된다고 보아서 구약을 부정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주희연, “초대 교회에 출현한 이단,” 『신학과 선교』 55(2019), 132.

17) 김상겸, “토마스 왓슨의 언약신학,”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5.

약사상의 활용은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이어졌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재세례파의 주장에 맞서서 언약사상을 통해서 유아세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언약사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거짓된(탈진실) 주장으로부터 진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것이다.

이후에 언약사상은 청교도의 시대에 그들의 중심 사상으로 꽃 피우게 되었는데,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을 통해서 2중 언약체계의 발전된 언약신학으로 정립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¹⁸⁾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 1620-1686)¹⁹⁾은 언약신학을 그의 중심 사상으로 삼아서 성도에게 언약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며 설교하고 권면하였다.²⁰⁾ 왓슨의 언약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성화에 대한 강조이다. 왓슨은 언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성화가 없으면,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자격을 갖지 못한다.”²¹⁾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왓슨은 그의 책 『경건을 열망하라』에서 에베소서

18) 2중 언약체계는 은혜언약과 행위언약이다. “언약신학의 청교도적 적용: 토마스 왓슨을 중심으로,” 3-4.

19) 왓슨은 캠브리지 대학교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1639년 19세의 나이에 문학 학사 학위를 받고 1642년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후에 런던 중심부에 있는 월브룩(Walbrook)의 성 스테판(St. Stephen's) 교회의 교구 목사로 10년간 사역했다. 이후에 비숍게이트(Bishops Gate)의 크로스비 홀(Crosby Hall) 장로교회에서 청교도 목회자인 스테판 차녹(Stephen Charnock, 1628-1680)과 함께 설교를 했다. 왓슨의 저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저서는 소요리문답에 대한 해설서인데, 『신학의 체계』와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세 권으로 완성된다.

20) 지금까지 알려진 왓슨의 설교와 저술 53편 중에서 15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논하는데, 이것은 왓슨의 신학의 중심에 언약신학이 있음을 보여준다. 김상겸, “토마스 왓슨의 언약신학,” 154.

21) Thomas Watson, *Body of Divinity*, 이훈역 역, 『신학의 체계』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2), 437.

2:12의 말씀을 통해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며 불경건하게 살다 죽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은혜언약 안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²²⁾ 왓슨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시대상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왓슨의 시대(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릴 당시)는 반율법주의(Antinomianism)와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anism)가 큰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두 위협 중 특히 반율법주의가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 반율법주의자들은 신자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우며 율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청교도와 왓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반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진실을 왜곡하는 탈진실적인 주장이었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청교도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웨스트민스터 표준서에 도덕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다.²³⁾ 왓슨은 반율법주의자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율법주의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니 모든 방종에 이르는 문을 열어 놓는 열쇠가 된다. 율법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다스리게 하고자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복음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아니 할 것이다.”²⁴⁾ 이처럼 청교도 목회자들은 다가온 반율법주의자들의 신학적인 위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언약백성의 삶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 사항임을 주장하였다.

왓슨의 시대에 두 번째 신학적인 위협은 아르미니우스주의였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조건적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타락

22) Thomas Watson, *The Godly Man's Picture*, 편집부 역, 『경건을 열망하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8), 269.

23) 김상겸, “언약신학의 청교도적 적용: 토마스 왓슨을 중심으로,” 111-112.

24) Thomas Watson, *The Ten Commandments*, 이기양 역, 『십계명 해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81.

전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예지예정이 그 신학의 중심에 있다.²⁵⁾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신학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이유는 결국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중요시하게 되며, 그것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편에서의 공로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⁶⁾ 왓슨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또한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렇게 말한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은혜로부터 타락하는 것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그의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본다.”²⁷⁾ 하지만 왓슨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지위가 강등되거나 상속권을 빼앗길 수 없으며 그리고 그들의 하늘 아버지도 그들을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내어 쫓지 않으실 것이다.”²⁸⁾라고 힘주어 말한다. 왓슨은 특히 새 언약인 렘 32:40을 인용하면서 이 언약이 우리의 아들 됨과 영원한 상속권의 보증이라고 말한다.²⁹⁾

이처럼 왓슨은 언약신학을 통해서 성화를 강조하였으며 또한 성화에 대한 양극단인 반율법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물론 우리는 혼란의 시기를 겪으며 동시에 종교 사회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했고, 잉글랜드 내전과 30년 전쟁과 같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설교해야 했던 청교도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 중요한 핵심 원칙은 우리의 시대에도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청교도 목회자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

25) 라온성,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 『신학지남』 83(2016), 243.

26)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과 왓슨은 성화를 통한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구원을 위한 공로로 보지 않았다. 김상겸, “언약신학의 청교도적 적용: 토마스 왓슨을 중심으로,” 116-117.

27) Watson, 『주기도문 해설』, 47.

28) 위의 책, 47.

29) 위의 책, 48.

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선동하는 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그들의 당연한 임무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한 위협인 반율법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교리를 정립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시대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목회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진실과 탈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³⁰⁾

둘째, 왓슨과 청교도가 언약신학을 통해서 결국 성화의 삶을 강조했던 것처럼 성화에 대한 의식과 강조가 중요하다.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광훈의 언행을 보면 그의 삶이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성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전광훈의 말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왓슨은 오직 성화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한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언약 개념에도 나타나는데, 칼빈은 언약의 두 가지 유익을 칭의와 성화로 보았다.³¹⁾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며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길을 잃은 것은 성화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30)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청교도 신학을 정립하여 5개의 표준 문서를 작성하였다.

31) John Calvin, *Institutes*, III, xi.1.

III. 언약백성의 삶의 규범: 십계명

청교도 언약신학의 성화에 대한 강조는 곧 도덕법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의 핵심에는 십계명이 있다.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은 모세언약으로 일컬어지는데, 모세언약은 언약신학 안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언약의 한 시행으로 여겨진다.³²⁾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언약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다.³³⁾ 이처럼 십계명은 언약백성으로 살아가 할 마땅한 삶의 규범이 되며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왓슨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을까? 왓슨은 그의 책 『십계명 해설』에서 십계명을 해석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1. 왓슨의 십계명 해석의 원리³⁴⁾

1) 도덕법의 명령과 금지는 마음속에까지 미친다.

왓슨은 도덕법은 외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고 보았다.³⁵⁾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변화인데, 계명들은 외부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

32) 언약에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위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은혜언약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가리킨다.

33)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한 요새가 되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의 책임이 생기는데, 그것이 십계명(모세언약)에 대한 순종이다. Watson, 『십계명 해설』, 35

34) 왓슨은 『십계명 해설』에서 십계명의 규칙을 8가지로 이야기 했으나, 필자는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3가지 규칙으로 정리했다. 위의 책, 81-87.

35) 위의 책, 81.

한 도덕법의 경고와 금지는 곧 욕망과 기호까지 금지한다. 결국 우리는 언약 안에서 외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왓슨이 도덕법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적용하면서 그 계명을 외적인 폭력에만 적용하지 않고 분별없이 행해지는 노여움, 시기, 미움 등에 적용하며 이 모든 마음속의 죄악들이 이 계명에서 금지된다고 말한다.³⁶⁾ 이렇게 살인은 실제적인 살인이라는 행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왓슨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간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육체의 죄와 함께 마음의 죄도 간음이라고 말한다.³⁷⁾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특히 그는 탐욕을 도적질의 뿌리로 보면서 이러한 탐욕의 마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갈라지게 한다고 경고한다.³⁸⁾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십계명의 계명들은 결국 죄에 틈을 주지 않게 한다.

결국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다. 왓슨은 사랑과 순종은 두 자매처럼 손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profluere a fide*) 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열납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도 하다.³⁹⁾

이것은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

36) 위의 책, 236.

37) 위의 책, 263.

38) 위의 책, 281.

39) 위의 책, 141-142.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결국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그 계명을 지키는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뛰어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2) 계명에는 말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의도되어 있다.

왓슨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라고 보았는데, 어떤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 반대되는 죄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다. “옛새 동안 일을 하고”라는 직업을 가지라는 명령에서 우리는 게으르게 직업 없이 사는 것이 금지된 것이다. 또한 어떤 죄가 금지된 곳에서는 그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금지되면 그의 이름을 존경해야 한다는 그 반대의 의무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해하는 것이 금지된 곳에는 그 반대되는 의무, 즉 그 이웃의 이름을 변호해 주며 그의 부족을 공급해 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그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⁴⁰⁾

이것은 곧 ‘살인하지 말라’의 제 6계명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왓슨은 이 계명이 단순히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데 그치지 않고 이 계명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적극적인 의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우리는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결핍 중에 있는 그들을 구제해야 하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들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어

40) 위의 책, 82.

야 한다.⁴¹⁾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휼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공급하시므로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⁴²⁾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휼을 받았으므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베푸는 것이다.

결국 왓슨은 십계명을 통해서 더 많은 도덕적 원칙을 이끌어 낸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규칙이며, 그 계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삶의 규범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우리가 몸소 죄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따르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도 금지한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를 따르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왓슨은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배치시킴으로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으므로 나단 선지자는 우리아의 죽음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렸다. 이처럼 거짓으로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그러므로 왓슨의 주장에 따른다면, 거짓된 정보로써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십계명에 금지된 죄이다. 이것은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 한 전광훈의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방해하지

41) 위의 책, 253.

42) 위의 책, 255.

않는 것도 왓슨은 십계명에 위배된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 있을 때 어떤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지시하는 것과 같다고 왓슨은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그의 하인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거나, 하인이 맹세하는 것을 듣고도 그를 억제해야 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주인은 그 하인의 죄에 중범자가 된다고 왓슨은 말한다. 성경의 예로,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멸시하였을 때 처벌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유죄자가 되었다(삼상 3:13-14).⁴³⁾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고 사회 질서를 흐리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처벌함으로 사회가 타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결국 왓슨은 십계명의 명령 안에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포함 시킴으로 십계명을 개인적인 규정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한 공동체적 규정으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⁴⁴⁾

2.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의 계명 중에서 탈진실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계명은 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결국 탈진실의 문제는 진실을 가리고 속이는 것 즉,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왓슨은 이 9계명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것은 금지 부분과 필수 부분이다. 즉, 명백하게 말로 표현되어서 금지되어 있는 부분과 기록되지 않았지만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43) 위의 책, 84-85.

44) 청교도는 언약의 대상을 하나님과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과 국가 또는 왕으로 그 대상을 확장시켰다. 김상겸, “토마스 왓슨의 언약신학,” 75.

1) 말로 표현되어 금지된 부분

9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웃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상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의 일을 부당하게 전달하는” 것이다.⁴⁵⁾ 이렇게 이웃을 중상하는 것의 파괴력이 큰데, 그리스도도도 중상으로 인한 모함에 시달렸다. 왓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혀의 상처가 검의 상처보다 더 크다’(Majora sunt Linguae vulnera quam gladii)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중상을 지어내는 사람은 그의 혀 속에 마귀를 지니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한다.⁴⁶⁾ 지금 한국 사회에 탈진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방에 있는 대상을 중상하고 모함하기 때문이다.

9계명의 금지된 것 두 번째는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죄가 포함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된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진실과 신뢰를 잃게 한다. 왓슨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마귀는 거짓 말을 맹세로 증언하는 자들을 단단히 점유해 버렸다고 말한다.⁴⁷⁾ 이러한 거짓 맹세의 예로 왓슨은 로마 가톨릭을 드는데, 그는 로마 가톨릭은 명분을 증진 시키기만 하면 거짓말이든 거짓 맹세든 특별 면제해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왓슨은 설혹 우리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확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propter Dei gloriam) 거짓말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확증한다.⁴⁸⁾ 왓슨은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을 피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5) Watson, 『십계명 해설』 289.

46) 위의 책, 290.

47) 위의 책, 292.

48) 위의 책, 293.

2) 기록되지 않았지만 함축되어 있는 부분

이 9계명이 함축하는 필수적인 부분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거짓 중상하거나 참소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누군가 비방받는 줄을 알 때 그들을 위해 증인이 되며 그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한다.⁴⁹⁾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비방받는 줄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말해 주지 않을 때 중상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만큼 침묵에 의하여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셈이 된다고 왓슨은 말한다.

이것은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의미를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알리고 거짓을 막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진실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럴 때 기독교는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진실의 시대는 한국 교회가 바른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러한 탈진실의 시대에 거짓 선동하고 중상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알리고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탈진리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49) 위의 책, 297.

IV. 나가는 말

탈진실 시대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취약함이 드러남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성장 중심적인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성화를 무시함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보수 교단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진실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탈진실 시대의 거짓뉴스와 선동에 취약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청교도의 언약신학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도전을 준다. 종교 개혁자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청교도 목회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화의 삶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언약백성에게 나타나야 할 당연한 결과로 보았다. 성화의 삶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으며 청교도 목회자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했다. 그들은 언약신학을 통해서 반율법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 대해서 도덕법은 그 시대에도 유효한 성도의 삶의 규범이자 기준이 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처럼 청교도 언약신학의 핵심에는 성화와 도덕법이 있는데, 왓슨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서 소극적인 금지의 규칙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함을 보았다. 단순히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거짓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말하고 그들을 변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극적으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퍼져나가는 거짓을 막고 진실을 알리고 변호해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음을 왓슨은 주장한 것이다.

탈진실의 시대에 한국의 교회는 또 하나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성화와 세상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시해 왔다. 그 결과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지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며 핵심 규범인 십계명에 있다. 특히 탈진실의 시대에 9계명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진실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변화되고 복잡한 시대에 한국 교회가 답을 찾아야 할 곳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인 말씀과 언약백성의 삶의 규범인 십계명의 올바른 이해와 준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참고문헌

- 김동영. “탈진실(post-truth) 속 문학정전 교육의 가치 모색.” 『국어교육연구』 51(2023), 71-109.
- 김상겸. “언약신학의 청교도적 적용: 토마스 왓슨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46(2025), 42-79.
- _____. “토마스 왓슨의 언약신학.”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김재성. 『청교도, 사상과 경건의 역사』. 서울: 세움북스, 2020.
- 라은성. “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 『신학지남』 83(2016), 227-264.
- 이희균·성신형. “광장으로 나온 극단주의 개신교 세력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성찰-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239-259.
- 주희연. “초대 교회에 출현한 이단.” 『신학과 선교』 55(2019), 121-146.
- 허의진. “라캉의 자본주의 담화를 통해서 바라본 탈진실 현상에 관한 연구.” 『용봉인문논총』 61(2002), 267-309.
- Beeke, Joel R., &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s*. 문병호 역.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지역 기독교강요 3』.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20.
- Packer, I. James. *Among God's Giants*, 박영호 역. 『청교도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 Watson, Thomas. *Body of Divinity*. 이훈영 역. 『신학의 체계』,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2.
- _____. *The Godly Man's Picture*. 편집부 역. 『경건을 열망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 _____. *The Ten Commandments*. 이기양 역. 『십계명 해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박용미. 『국민일보』 2025.02.27.일자. “전광훈은 왜 광화문 운동 나섰나… 그 바탕엔 美 트럼프와 은사주의 있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11824> (2025.10.13.)
- 박인재. 『교회와신앙』 2025.11.07.일자. “전광훈 씨, “청교도신학원 등록하라” 중

용.”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19>
(2025.12.09)

이용필. 『NEWS&JOY』 2019.07.18.일자. “청교도신학원 세운 전광훈 목사 “목사
다운 목사 만들어야 한국교회 살아.” [https://www.newsjoy.or.kr/news/ar-
ticleView.html?idxno=224483](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83) (2025.10.13.)

정인아. 『JTBC news』 2025.01월06일자. “외신 기자회견’ 나선 전광훈 “북한·중
국이 대한민국 선거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0700>
(2025.10.14.)

조하준. 『굿모닝충청』 2025.02.12일자. “극우 목사 전광훈 일가의 ‘기업 제국’ 실
체 드러났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
idxno=414643](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643) (2025.10.13.)

『현대종교』 2025.11.03.일자. “2025년 교단별 이단 및 말 많은 단체 동향.” [http://
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42290&
item=&no=20851](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42290&item=&no=20851) (2025.10.13.)

『YTN라디오』 2025.05.27.일자. “‘대가리 박아’ 전광훈 본 신학자 기겁, ”하다하다
별… 이미 이단 넘어선 사이비.” [https://radio.ytn.co.kr/program/?f=2&id=
102806&s_mcd=0433&s_hcd=01](https://radio.ytn.co.kr/program/?f=2&id=102806&s_mcd=0433&s_hcd=01) (2025.10.13.)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3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16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의 언약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본다. 이 시대 청교도 신학을 표방하는 전광훈의 주장과 언행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뉴스로 선동하는 탈진실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의 주장과 언행은 청교도적 영성과 연결될 수 없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언약신학을 중심으로 성화를 강조하며 성도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했는데, 언약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은 모세언약으로 불리는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다. 왓슨은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는 계명에는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 9계명에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을 막고 진실을 알리기를 힘써야 함이 함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청교도의 언약신학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학문이며, 그 중심에 있는 모세언약은 성도가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이 됨을 보여준다.

주제어: 탈진실, 그리스도인 윤리, 언약신학, 청교도, 토마스 왓슨, 십계명, 모세언약
